Entertainment p/14

섹스키스' 강성훈 다시 수감

metro

메트로 2013년 2월 14일 목요일 제2870호

Entertainment p/18

박시연·현영 "프로포폴 억울"

레인보우 컴백 쇼케이스

metro

메트로 2013년 2월 14일 목요일 제2870호 www.metroseoul.co.kr

'파란 괴물' 15일 불펜투구

출근길 '최고의 베프' 메트로신문…열독률 전국 70개 일간신문중 8위

메트로신문이 전국 70개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한 열독률 조사에서 8위에 올랐고 무료 신문 중엔 유일하게 순위에 랭크됐다.

메트로신문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실시한 '2012 미디어 이용 조사'에서 2.3%의 열독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조선일보(23.7%), 중앙일보(17.9%), 동아일보(16.0%), 매일경제(6.8%), 경향신문(5.9%), 한겨레신문(5.4%), 한국일보(2.4%)에 이어 여덟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메트로신문에 이어 부산일보(2.2%), 국민일보(2.0%)가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60개 매체의 열독률은 2.0% 미만이었다.

열독률이란 신문을 읽는 비율로 구독 여부와 상관없이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신문을 읽은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신문을 가장 많이 읽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연구소가 조사위의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남녀 7000명(일대일 방문면접 방식)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했으며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 ±1.4%포인트다.

메트로신문은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 친근함, 편리한 휴대성을 바탕으로 대학생 및 직장인들에게 호감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대학신문이 실시한 '무료종합일간지 대학생 선호도 조사'에서는 39.3%의 선호도를 기록, 2위 신문(19.6%)을 두 배 이상 따돌리기도 했다.

한편 조사위가 발표한 매체별 영향력에 따르면 TV방송이 48.2%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26.0%), 신문(17.3%), 라디오방송(8.4%)이 뒤를 이었다.

/채동일기자 eleven@

달리지 못하는 '쌍용차 딜레마'

신차 '코란도 투리스모' 연비·가격 등 경쟁력 의구심
무급휴직자 복귀하지만 판매 부진땐 다시 휴직 우려

지난 7일 쌍용차 직원들은 모처럼 낭보를 접했다. 3월 1일자로 무급 휴직자 455명 전원을 복직시킨다는 인사 발령이 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무급 휴직자가 재차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내에 감돌기 시작했다. 이틀 전인 5일 이 회사 고위 관계자가 11인승 차량 '코란도 투리스모' 출시 행사장에서 "무급 휴직자 전원을 코란도 투리스모 생산라인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업체 현장에서 가장 큰 경사인 신차 출시에도 쌍용차 근로자들이 편하게 웃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코란도 투리스모의 상품 경쟁력 탓이다. 소비자 대다수가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출시 전의 '기대'가 벌써부터 '무관심'으로 돌아서고 있다.

로디우스의 후속 모델인 이 차에 할당된 올해 판매 목표는 수출 포함 2만 대. 전작인 로디우스의 지난해 판매량은 2000여 대로 알려졌다. 찾아 못한 일을 이루기, 그것도 10배나 잘해야 한다.

문제는 상품성이다. 쌍용차 측은 2년6개월간 1800억원을 들여 개발했다고 하지만 경쟁 모델과 비교할 때 딱히 장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를 고를 때 가장 따지는 요소가 연비다. 2.0 디젤 엔진을 단 코란도 투리스모는 전륜·4륜 구동 버전이 각각 12.0·11.3km/ℓ다.

반면 전륜 구동만 지원하는 기아차 카니발은 11.3km/ℓ다. 카니발이 코란도 투리스모보다 더 큰 2.2 디젤 엔진을 장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차이가 없다.

가격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 코란도 투리스모는 2480만원부터 3564만원까지이지만 카니발은 2650만원에서 3519만원이다.

결국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따졌을 때 코란도 투리스모는 카니발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차를 사는 사람은 브랜드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같은 값, 비슷한 성능이라면 어쩌면 도 카니발이나 현대차 스타렉스가 유리하다.

중고차 가격만 봐도 2011년식 동급의 비슷한 조건의 두 차량을 비교하면 카니발이 300만원가량 더 받는다.

쌍용차의 신차에 큰 기대를 했던 소비자들은 코란도 투리스모를 접한 뒤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시 몇몇 자동차 전문 게시판 글을 보면 상당수가 "(쌍용차가) 비슷한 제품을 만들기는 했으나 더 나은 차라고는 못 한다. 코란도 이름을 우려먹는 마케팅은 그만해야" 는 내용을 담았다.

코란도 투리스모는 평택공장 조립2라인에서 대형 세단 '체어맨'과 함께 생산된다. 2라인은 가동률이 40%대에 그치고 있어 근로자들이 정규 근무시간의 절반을 쉬고 있다.

신차가 잘 팔리지 않을 경우 신규 투입된 무급 휴직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조립라인의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다니던 회사로 돌아가는 근로자, 동료를 보냈다는 부채를 안고 있는 기존 근로자 모두 우울해지는 나쁜 시나리오인 셈이다.

이에 대해 쌍용차 노조 관계자는 "(무급 휴직자를 2라인에 투입하는) 큰 틀이 정해진 건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직 변수가 있는 만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영화관람료 1만원 시대 CGV 목동·강남 등 8곳 1000원 인상

멀티플렉스 CGV가 일부 점포에서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다.

인상 대상 점포는 CGV 목동·상암·강남·센텀시티·미산·순천·오리·야탑 등 8곳으로 14일부터 주말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주중 오후 4시 이후에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CGV 관계자는 "관람객이 가장 많은 주요 시간대에 1000원씩 오르는 것"이라며 "이들 점포는 주부 관람객이 많다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서 가격 차별화를 시도했다. 주요 시간대 외에는 오히려 관람료가 내려간다"고 밝혔다. CGV의 영화관람료가 인상된 것은 2009년 이후 4년 만이다.

한편 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다른 멀티플렉스 극장 업체들은 아직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김민준기자 mkim@

초콜릿보다 달콤한 이웃사랑 빵 발렌타인데이를 하루 앞둔 13일 경기 광명 광기적십자사 희망나눔봉사센터 경기중앙지역본부에서 열린 볼런티어데이(Volunteer Day) 행사에서 한 커플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빵을 만들고 있다. /뉴시스

月 500만원에 속는 청춘들

대학생 다단계 실상은 40만원도 못벌어

지난해 청년 취업난과 맞물리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던 이른바 '거마대학생' 사건 이후에도 대학생 대상 불법 다단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13일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2011년 "거마대학생" 사건 이후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품 강매나 대출 알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가 이날 밝힌 불법 다단계 판매의 대표 수법은 단기간 고수익 보장이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먼저 다단계회사에서 교육받은 친구나 동창, 군대 동기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 3~6개월 만에 월 5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한다.

하지만 실제 이런 수익을 얻는 계층은 상위 1% 판매원뿐이다. 특히 상위 1~6% 판매원으로 내려가면 월수익은 4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다단계 판매원에 걸려든 대학생의 99%는 식비조차 건질 수 없다는 얘기다. /김지한기자 hanyhan@

전기 적게 쓰는 집 '손해'

전기료 누진제 3~5단계 축소…결국 서민부담 늘 듯

6단계로 구분된 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3~5단계로 축소된다. 구간이 줄어드는 만큼 상대적으로 서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지경부는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5단계로 줄이겠다고 누진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kWh 이하), 2단계(101~200kWh), 3단계(201~300kWh), 4단계(301~400kWh), 5단계(401~500kWh), 6단계(501kWh 이상)로 구분된다.

전력량에 따른 요금은 저압용이 1단계 59.10원, 2단계 122.60원, 3단계 183.00원, 4단계 273.20원, 5단계 406.70원, 6단계 690.80원으로 6단계가 1단계의 약 11.7배다.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4~8배로 줄어든다.

정부는 상반기 중 누진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하지만 누진제 요금 구간을 줄이면 결국 서민·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경부는 현재 월 100kWh 이하로 돼 있는 1단계 구간을 150~200kWh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료비 연동제, 전압별 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시간대별 차등 요금) 등 원가 기반 요금제로 전력소비 패턴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박상훈기자 sun@metroseoul.co.kr

조선족 말투 사용 치밀한 계획

백화점 폭파 협박범 검거

13일 검거된 전주 롯데백화점 폭파 협박범 백모(45)씨는 지난달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께 백씨를 집 근처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일부러 조선족 말투를 사용하고 조선족 범죄자들의 수법인 '5만원권 10㎏' 식의 무게 단위 금액을 표현할 정도로 치밀함을 보였다. 실제 경찰은 백씨가 조선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따로 수사팀을 꾸리기까지 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백씨는 휴대전화 3대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현재 백씨는 '그동안 어렵게 살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씨는 지난 7일 오후 전북 전주시에 "5만원권 10㎏(약 4억5000만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전주 롯데백화점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해 큰 소동을 빚었다. /황준희기자 unique@

북, 핵 우라늄 사용 주목

북한의 우라늄 사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사용된 물질 파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에 벌인 1~2차 핵실험에서 모두 플루토늄을 사용했다. 플루토늄과 달리 우라늄은 제조가 간단하고 소형화·경량화가 용이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라늄을 사용했다면 핵제조 기술이 진일보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희기자

구두 장인을 향한 첫발 13일 서울 성동구 종소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오른쪽) 구두 장인이 수제화 기능교육 수강생들에게 구두 가죽 및 장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성동구는 오는 6월 말까지 제화기능교육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공무원 추가합격제 도입 결원땐 성적순으로 선발

내년부터 공무원 공채 시험에도 추가합격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9급 공무원 공채에서 2020명이 합격했으나 이후 85명(4.2%)이 다른 시험 중복 합격 등의 이유로 임용을 포기하면서 인력 운용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원에 대한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하다. 추가합격자는 면접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받은 수험생 중 미흡 등급을 제외하고 성적 순으로 뽑는다. 미흡 등급은 면접위원 과반수가 정수를 상·중·하로 평가해 2개 이상의 요소에 '하'를 받거나 복수의 면접위원이 같은 요소에 '하'를 준 경우다.

한편 개정안은 신설된 방재안전직렬 5, 7·9급 시험 과목으로 재난관리론과 안전관리론, 도시계획·방재관계법규를 선정했다. /배동호기자 e event

층간소음 대책도 허당

아파트 바닥두께 늘리는 등 기준 강화했지만 처벌없는 권고에 그쳐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12일 환경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주거생활 소음 기준 신설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아파트를 시공할 때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시공 시 바닥의 두께를 30mm 더 보강해야 한다. 소음의 기준은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경량충격음 58dB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기존에는 아파트 시공 시 바닥 두께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소음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서 당사자에게 소음행위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소음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보수 예산 확보도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가이드라인에 그칠 뿐 법적 처벌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소음을 유발하면 강제 퇴거 조치가 가능하도록 민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처벌 여부는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주관적인 공해이고 거주민의 생활습관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강력한 규제는 과다 설계를 낳아 분양가 상승(전용면적 85㎡ 아파트 기준 가구당 평균 200만원)이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규제 강화뿐 아니라 입주민 자치규율을 통한 소음 감소 문화 확산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① 신문 배포대에서 메트로신문을 집는다
② 오늘의 복코드를 찾고 오늘의 상품을 확인한다
③ 복코드 앱을 휴대폰에 내려받아 실행한다
④ 스캔하기 버튼을 누르고 오늘의 복코드를 스캔한다
⑤ 스크래치 카드를 긁어 당신의 행운을 확인한다

긁을수록 커지는 행운

출근길 선물 주는 '메트로신문 복코드'앱 인기

메트로신문이 독자들의 새해 큰 복을 기원하며 준비한 '복코드' 앱이 화제다.

메트로신문에 매일 새롭게 게재되는 복주머니 컬러 코드를 '복코드' 앱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스크래치에 참여할 수 있다. 매일 바뀌는 오늘의 상품과 실시간 잔여 수량을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문지르면 복권을 긁는 것처럼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알려준다. 매번 기회가 주어지고, 당첨되지 않았을 때는 광고를 보면 참여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 최근에는 평균 30회 응모에 당첨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코드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iOS 버전도 곧 앱스토어에 준비된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매일 새로운 경품을 제공하는 복코드 앱은 아침 출근길을 기대하게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로 직장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메트로기자

본 이벤트는 ㈜메트로신문사와 ㈜모비캐이디어가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콧대 낮춘 명품들 눈물의 떨이

백화점 3사 최대 80%할인

불황 속에 명품들도 콧대를 낮췄다. 80%까지 값을 내리는 떨이 판매에 나섰다.

13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이 15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명품 할인행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팔지 못해 창고에 남은 재고를 포함해 준비한 물량이 총 850억원어치에 달한다.

먼저 이번 주말 현대와 신세계가 포문을 연다.

현대는 15~17일 무역센터점에서 질샌더와 멀버리 등 30여 개 브랜드를 30~80% 할인 판매한다. 이 백화점 최대 규모인 150억원어치의 물량을 선보이며 처음으로 봄·여름 상품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18~21일에는 압구정 본점이 행사를 이어간다.

신세계도 15~17일 본점에서 '해외명품 대전'을 실시한다. 아르마니와 더 로우 등 50여 개 브랜드가 최대 70% 할인한다. 펜디 멀과 다이앤본퍼스텐버그 등의 브랜드도 처음으로 행사에 얼굴을 내민다. 행사는 강남점(22~24일)과 센텀시티점(28일~3월 3일)에서 계속된다.

롯데는 22~24일 본점에서 75개 브랜드 제품을 최대 80% 할인한다. 10꼬르소꼬모와 라꼴렉시옹 등 해외 편집매장 제품도 업계 처음으로 할인 가격표를 달았다.

/박지원기자 jiw@

교복 1000원에 팝니다 13일 서울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관계자들이 중고생 교복 나리사랑 나눔장터를 준비하고 있다. 14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교복, 참고서 등을 500원에서 2000원에 판매해 수익금을 저소득가정 장학금으로 전달한다. /연합뉴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정홍원 청문회 때 가족 배석

'인격살인' 논란에 20일 능력-21일 도덕성 나눠 검증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21일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원유철 위원장은 13일 홍일표 새누리당·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과 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인격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은 인사청문회 행태와 문화 개선을 위한 장치를 새롭게 도입한다.

정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20일)과 공직 시절 활동 평가 및 도덕성 검증(21일) 등이 골고루 이뤄지도록 인사청문 주제를 일자별로 안배했다.

논란이 된 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급여 및 수임료, 아들 병역 의혹 등에 대한 증인·참고인 신문은 22일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가 모두 발언을 할 때 원할 경우 가족이 배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숙희기자

41일만에 빠진 '몽니'…이동흡 사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 41일만에 사퇴했다. 이 후보자는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 청문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늘자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후보로 지명된 직후 이 후보자는 지난달 21~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장남의 증여세 탈루, 가족동반 해외출장,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 논란 등 각종 의혹을 받았다.

여야의 자진사퇴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는 "사퇴하면 그동안의 의혹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도중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혀 왔다. 이 후보자의 낙마로 현재 소장 공백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윤희기자 unikys@

교육-서남수 외교-윤병세 국방-김병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내정

'매파 트리오'로 대북 경고 盧정부 인사 'MB 선긋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외교·안보 라인을 포함한 6개 부처 국무위원 후보자 인선을 단행했다.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내정됐고 외교부 장관에는 윤병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이 내정됐다. 또 법무부 장관에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 국방부 장관에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안전행정부 장관에 유정복 새누리당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진룡 가톨릭대 한류대학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앞엔 박정희 뒤엔 육영수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13일 임시 집무실로 가기 위해 서울 노량진동 자택을 나서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사진이 인쇄된 고리가 달린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한 명단에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것은 북핵 위협에 따른 '안보 중시' 기조를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다.

특히 윤병세·김병관 후보자와 앞서 인선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보자는 대북 강경파(매파)로 알려져 있어 북핵 위협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출범 전부터 박 당선인의 대북 핵심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면서 강경 모드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인사에 적용됐다는 분석이다.

김병관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 5명이 모두 관료 출신인 점도 특징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가 4명이나 발탁됐다.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숙희기자 sookhee@metroseoul.co.kr

中 고위층 '공공의 연인' 제포설

대장금 주제가 부른 탕찬

한류 드라마 '대장금'의 중국어 주제가를 부른 유명 여가수 탕찬(3*·사진)이 춘제(설) 직전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은 탕찬이 다수의 당·정·군 고위층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돈세탁을 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13일 보도했다.

탕찬은 연인인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를 위한 고급 정보를 캐내기 위해 고위층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소문이 나왔었다.

탕찬과 관계한 것으로 알려진 구쥔산 전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은 지난해 말 200억여 위안(약 3조4000억원)을 부정 축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탕찬은 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그의 구쥔산의 재판 과정에서 이 군 고위 관계자의 신원과 탕찬과의 관계가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국명기자 lumiere@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138억 로또 대박 주인공 혹시 나?
- 모스크바 '소원의 벽' 메모지 빼곡

"핵도발 북한 더욱 고립될 것" 2기 첫 국정연설에 美 여야 없었다

105번 박수받은 오바마

버락 오바마(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12일 국정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왼쪽) 부통령은 물론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2기 임기 첫 국정연설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의 확산을 막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이라며 "어젯밤 우리가 본 것과 같은 (핵실험) 도발들은 그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만 그들의 안보와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자신의 국정연설 전날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한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대부분을 예산 삭감과 세제 개혁 등 경제 문제를 비롯해 총기 규제, 이민 개혁 등 국내 현안에 할애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 성장엔진을 다시 살려 중산층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세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국정연설이 진행된 60분 동안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는 무려 105번의 박수가 울려 퍼졌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재정감축과 증세, 건강보험 개혁안 등을 두고 오바마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던 공화당 의원들도 박수를 쏟아냈다.

민주·공화 양당은 미국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한 정쟁을 펼치고 있지만 어느 편들은 국가 최고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조화로운 모습을 보였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연금복권520 제85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6조	311891
		1조	258587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603728
4등	100만원	각조	71006
5등	2만원	각조	735
6등	2000원	각조	85, 24
7등	1000원	각조	5, 7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편집인 남윤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국장 직대 김광흠
서울광고문의 (02)721-6351~3
부산광고문의 (051)660-2100
독자센터 (02)721-9862
2002년 5월 31일 창간 2002.5.3일 등록번호 문화가 00117

구정소식

서초구 부동산 포털 개편

서울 서초구는 서초구 부동산정보포털(land.seocho.go.kr)을 개편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부동산정보포털 내 지도검색서비스 생활정보란을 통해 주민들과 밀접한 관내 2만여 개 사업장의 홈페이지를 업로드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업로드를 원하는 사업장은 구 부동산정보과(02-2155-6901)로 문의하면 된다.

베이비엑스포 21일 세텍서 개막

2013 베이비엑스포가 21일부터 열린다.

13일 (주)미라전람에 따르면 '2013 베이비엑스포 강남'이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강남구 대치동 3호선 학여울역 앞 세텍(SETEC)에서 개최된다.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150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서 300여 개의 브랜드를 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 튼튼영어 베이비리그, 올잰핑크박을 비롯해 미다스베이비, 베이비프라임, 에프랑, 쿼니, 암글레시나, 맥클라렌, 실버락스, 녹십자, 올림푸스 등의 유명 업체가 총출동한다.

박람회 입장료는 5000원이지만 홈페이지(www.babyexpo.kr)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KB국민 고운맘카드 및 KB국민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2)2238-0345 /양동희기자 unimar@

석·박사의 꿈 이루세요!

한세대 대학원 신·편입생 내일까지 모집

경기도 군포 소재 한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올해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석사·박사과정 모두 15일 자정까지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에서 가능하며 입학원서를 제외한 서류는 반드시 우편 및 방문 제출해야 한다.

음악계열과 신학을 비롯한 일부 학과에서는 19일과 23일 면접 및 실기시험을 본다. 합격자는 2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입시 정보는 홈페이지(graduate.hansei.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450-5188, 5071~2 /김효희기자

차티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힘이 되어 드려야지 돌아가신 뒤에 보험금이 무슨 소용이죠?

-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1천만원 한도(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 **중증치매간병비 3천만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만 지급
- **골절 · 화상 치료비 50만원 지급**
  상해로 골절,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확정시 (치아파절 제외)
- **질병입원일당 첫날부터 2만원**(180일 한도)
-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각 2백만원**(최초 1회한)
  암진단비 :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하며,
  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지급
- **50~75세 가입**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차티스입니다"

- 납입기간 : 전기납 • 보험료는 상해 1급기준이며,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상이
-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 3년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 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청약절차 없이, 최대 90세까지 (선택계약 3,4,5,6은 90세까지) 보험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동시 가입시 10% 할인혜택

1644-9896

월보험료(1인당)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Active 보험금			[illegible]		
50~88세	12,540		50세	880	1,770
			60세	3,600	8,560
			70세	21,030	42,730
골절 화상 치료비			[illegible]		
50~89세	2,590		50세	8,650	6,380
			60세	12,890	9,180
			70세	19,130	14,720

보장내역	연령	남자	여자
암 진단비	50세	1,720	2,140
	60세	3,510	2,560
	70세	5,110	3,490
뇌졸중 진단비	50세	860	600
	60세	2,880	1,780
	70세	5,520	3,800
급성심근경색진단비	50세	230	90
	60세	880	300
	70세	690	400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만 조심해야 하나요? 보험료도 신경쓰셔야죠!

- 가입연령 15~65세 • 납입기간 : 전기납 • 보험료는 성별, 연령별로 상이
-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 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청약절차 없이 최대 90세까지, 일부 담보는 80세까지 보험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차티스 큰병이기는보험IV

1577-6429

-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5백만원 한도(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 **암진단비 2천만원 보장**
  가입후 91일부터 보장하며 최초 1회한 지급
  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지급
- **뇌졸중(뇌경색, 뇌내출혈)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Active 보험금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5~65세	6,270		30세	2,290	7,030	1,200	520	750	270
			40세	6,780	7,570	2,730	890	1,380	530
			50세	7,[illegible]	[illegible]	8,670	[illegible]	2,280	880

www.chartis.co.kr

CHARTIS

KOSPI
1936.13 · 1931.77 · 1950.90 · 1945.79 · 1976.07 (+30.28)
2/6 · 2/7 · 2/8 · 2/12 · 2/13

KOSDAQ
502.58 · 501.[illegible] · 504.94 · 503.72 · 507.99 (+4.27)
2/6 · 2/7 · 2/8 · 2/12 · 2/13

Nikkei (일본)
11251.41 (−117.71)
Hang Seng (홍콩)
23215.16 (+38.16)
Shanghai (중국)
2432.40 (+13.87)
Dow Jones (미국)
14018.70 (+47.46)

EXCHANGE RATE

달러	1056.50
엔(100)	1165.52
유로	1461.[illegible]
위안	174.33

‘CEO 명문학군’ 서울·영남 밀집 <80%>

10대그룹 사장 출신高 분석… 경기고 17명 최다·부산고 9명 ‘지방 1위’

10대 그룹 사장을 꿈꾸는 자라면 자신의 출신 고교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다. 10대 그룹 사장 10명 중 8명이 서울과 영남 고교 출신으로 조사됐다.

기업 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는 국내 10대 그룹 93개 상장사 사장(직급 기준) 189명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79.9%에 이르는 151명이 서울이나 영남의 고교 졸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경기고·서울고·경복고·중앙고·용산고 등이 포진한 서울지역 고교 출신이 50.3%인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고·경남고·경북고·경북사대부고·동래고 등 영남 고교 졸업생은 56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경기고·서울고·경복고·중앙고는 각각 17·12·11·11명의 10대 그룹 사장을 배출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고(9명), 용산고(6명), 경남고(6명), 경북고(5명), 경북사대부고(5명), 서울사대부고(4명), 동래고(4명), 신일고(4명) 등의 순이다.

대구고·계성고·대전고·마산고·배재고·보성고가 각 3명으로 공동 13위에 올랐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에는 서울고 출신이 많았고, 현대차·SK·LG그룹은 경기고 출신 사장들이 주류를 이뤘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김재권 삼성전자 사장, 우남성 삼성전자 사장, 김석 삼성증권 사장,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등이 서울고 출신들이었다. 경기고 출신으로는 삼성물산의 김신 사장이 유일했다.

LG그룹에서는 이희국 LG 기술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기고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은 이형근 기아차 부회장, 최한영 현대차 부회장, 김신배 SK그룹 부회장 등 경기고 출신이 각 4명이었다.

호남 출신 고교 졸업생 중에는 현대차(3명), SK(2명), 삼성(1명)에만 있었을 뿐 다른 그룹에는 없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여심 홀리는 붉은 태블릿PC 삼성전자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이 여성 소비자를 겨냥한 갤럭시 노트 10.1 LTE 붉은색(가넷레드) 모델을 출시한다. 제품에 쓰인 붉은색은 보석의 하나인 가넷(석류석)의 색깔을 표현한 것으로, 행복과 용기 여성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색상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 제공

‘한강의 기적’ 제조업이 저문다

작년 부도업체의 37% 차지… 2006년 이후 최고

지난해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망했다. 특히 제조업 부도 비중이 2006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거의 모든 업종이 도산을 피하지 못했지만 제조업의 쇠락이 부각됐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업체 수는 1228곳이다. 전년도 1359곳보다 131곳 줄었다.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이 38.8%(476곳)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제조업 36.8%(452곳), 건설업 19.3%(237곳), 기타 5.1%(63곳) 등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서비스업 비중은 4.8%포인트(43.6→38.8%) 줄어들었지만 제조업은 4.8%포인트(32→36.8%) 증가했다. 건설업은 0.6%포인트(19.9→19.3%)로 줄었다.

부도업체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2006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06년 36.8%를 차지한 제조업 비중은 2007년 34.3%, 2008년 32.9%로 계속 줄어들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원동력이었던 제조업이 이젠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서비스업 비중은 2006년 39.6%에서 2007년 41.2%, 2008년 42.3%, 2009년 44.6% 등으로 계속 늘다가 2010년(41.1%)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작년엔 38.8%를 차지했다.

/장규성기자 lazyhand@

1만원대 실손보험 너~무 안 팔리네

한달동안 4000건 미만

금융 당국이 공을 들였던 단독 실손보험 출시가 예상된 '실패'를 맛보고 있다. 보험 설계사의 외면 때문인데, 출시 전부터 보험업계에서 이를 예견하고 금융 당국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10개 손해보험사의 지난 1월 단독 실손보험 판매 실적은 3953건에 그쳤다.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신상품을 출시하면 통상 한 달 실적이 10만~20만 건을 훌쩍 넘는 것과 비교하면 극히 저조한 수치다.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 당국 지시에 따라 연초부터 크게 광고했으나 단독 실손보험 상품을 찾는 고객이 거의 없어 판매 실적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만~2만원대 단독 실손보험을 내놓으면 서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호응을 얻으리라는 금융 당국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유지승기자 lazyhand@

‘이태백’ 처절한 1월

20대 취업자 10만명 감소

20대 취업난이 심각하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 넉 달째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 선을 회복했고 상용직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청년층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의미다. 졸업 시즌을 맞아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통계청의 고용 동향을 보면 1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만2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20대 취업자 감소폭은 10만 명을 웃돌며 2년 만에 가장 컸다.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무려 2.9%포인트 추락했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신규 취업 시장 자체가 굉장히 줄어 3월까지는 청년 취업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성기자

지난달 수출입물가 2년래 최대폭 하락

원화 강세로 수출입물가가 모두 떨어졌다. 하지만 수출 주력품의 가격은 올라 수출 마이너스 효과는 제한됐고, 수입물가 인상에는 도움이 됐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올해 1월 수출물가지수는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92.19로 한 달 전보다 0.1%, 전년 동기 대비 8.1% 떨어졌다.

전월 대비 수출물가지수는 작년 10월부터 넉 달 연속으로 내려갔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하락률은 작년 8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떨어졌고 2011년 1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작년 12월과 비교할 때 농림수산품 수출물가는 1.2% 내렸다. 공산품은 0.1% 떨어진 정도였다. 공산품 가운데 수출 주력품인 벙커C유(2.4%), 휘발유(2.5%), TV용 LCD(7.9%), D램(7.0%), 중형 승용차(5.8%) 등의 수출물가는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수송장비 등 수출 주력품은 계약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입물가지수는 102.33(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으로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6% 각각 하락했다. 수입물가는 작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내려갔다. 전년 동월 대비 하락폭도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김지성기자

"펀드베테랑이 제안하는 손쉬운 해외채권 투자방법"

글로벌 분산투자 채권펀드	글로벌 이머징 채권펀드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펀드	글로벌 투자적격 채권펀드	글로벌 물가연동 채권펀드

[판매사] 한국투자증권 / 우리은행 / 신한금융투자

펀드베테랑-한국투자신탁운용
02)3276-4700 www.kim.co.kr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상품은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하시기 전에 환매방법과 보수 등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rue friend 한국투자 신탁운용

분양단신

'e편한세상 세종' 상가 입찰

대림산업은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일대에 위치한 'e편한세상 세종'의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

983가구로 구성된 e편한세상 세종은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로 15일 입주를 시작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상가는 총 23개 점포로 전용면적 37~135㎡로 구성됐다. 내정가 공개 경쟁입찰 방식이 적용된다.

e편한세상 세종의 단지 내 상가는 983가구에 이르는 단지 내 두터운 수요층과 홍익대·고려대 캠퍼스 상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다양한 고객층의 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가를 단지 내 코너에 배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문의 (044) 866-9055

삼송역세권 '동원 로얄듀크'

동원개발이 경기 고양 삼송동에 있는 '삼송동원로얄듀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을 5분대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인근 대곡역에서 환승하면 서울역·안산·인천공항까지도 빠른 시간에 연결된다.

또 올해 원흥역과 GTX가 착공되면 강남권까지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계약취소분 등 잔여 세대에 대해 2년 기간의 전세를 주고 있다. 입주 보증금이 84㎡형 1억7000만원, 110㎡형 1억9000만원, 116㎡형 2억원이다. 2년 동안 전세로 살아보고 분양받으면 된다. 문의 031)711-0002

현대캐피탈 전세론 인기 담보의 80%·4%대 저리

대부분의 자산이 전세보증금으로 묶여있는 서민들에게 유용한 전세대출 상품이 최근 인기다.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캐피탈 전세론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최고 5억원) 넉넉한 한도에 최저 4.88%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뿐 아니라 반전세·월세 입주자까지 대출의 자격은 넓히고 상환의 부담은 줄였다.

전화 한 통으로 자세한 상담부터 대출금 입금까지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등급에 영향 없이 한도 조회가 가능하다. 문의 1577-1681

개미, 또 헛다리 짚었네

올해 투자자별 주요종목 수익률

'실적주 플레이' 기관 4.17% 삼성전자 뒷북친 개인 -11%

주식시장에서 개미는 역시 큰손을 이길 수 없었다. 외국인 수급 불안 등에 따른 조정장 속에 개인투자자는 불투명한 삼성전자 등에 투자했음에도 '쪽박'을 찼지만, 통신주에 집중한 기관투자자는 수익률에서 '선방'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기관이 4.71%로 가장 높았다. 개인들의 상위 20개 종목 수익률은 -11.00%로 쪽 빠졌다. 같은 기간 코스피 등락률은 -2.56%,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종목 수익률은 1.57%로 집계됐다. 기관 수익률은 외국인보다 3.14%포인트, 시장보다는 7.27%포인트 높았다.

◆기는 개미 뛰는 외인 위의 기관

기관 순매수 상위 1~3위 종목은 현대모비스(3.99%), 삼성생명(8.16%), 현대차(-3.20%)였다. 기관은 SK텔레콤(17.70%), KT(3.23%), LG유플러스(9.87%) 등 이동통신 3사 주식도 3400억원어치 사들였다. 세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0.27%에 이른다.

공정무역 금으로 만든 '착한 커플링'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스톤헨지 매장에서 페어 트레이드(공정무역) 골드 커플링을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공정채굴방식으로 거래된 금으로만 제작됐다. /뉴시스

개인은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삼성전자, 기아차, LG화학 등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1~5위 종목은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과 모두 겹쳤다. 이는 외국인이 팔아치운 종목을 개인이 사들였다가 낮은 수익률을 봤다는 의미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은 "외국인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매매 패턴을 보이는 반면, 기관은 실적이 좋은 종목을 위주로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성향이 있다"며 "작년 실적이 좋은 업종을 집중 매수해 좋은 수익률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혜랑기자 hyeyhan@metroseoul.co.kr

주택시장 한숨에… 중소형 건설주 '폭삭'

한일·쌍용건설 '상폐' 위기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일부 중소형 건설사들이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사 주식은 상장폐지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대주주인 모기업도 실적 악화로 고전하고 있다.

13일 산업계와 금융·증권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한일건설은 지난해 258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자본잠식률이 109.5%로 자본금이 잠식됐다.

쌍용건설은 2011년 1570억원 순손실에 이어 지난해 3000억~4000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내 자본 전액 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자본 잠식은 아니지만 두산건설의 당기순손실도 2011년 2934억원에서 지난해 6148억원으로 커졌다. 경남기업도 지난해 2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 전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건설업 침체로 6개 건설사가 주식시장에서 퇴출됐다.

/개념송기자

100자 브리핑

■ KB국민은행은 13일 영등포지역본부에 '금융고충상담센터'를 오픈했다. 앞으로 전국 33곳에 금융고충상담센터를 설치해 고금리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헬스 앤 웰빙기업 변신중"

김태영 필립스전자 사장 "소형가전 중심서 탈피"

낙후된 대중교통 시설에 후텁지근한 열대기후로 매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인도네시아의 버스정류장. 지난해 이곳에 태양전지판과 풍력 환풍기가 설치됐다. 낮에는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밤엔 밝은 조명이 켜져 보다 안전해졌다. '지속가능한 버스정류장'을 만든 배경에는 필립스 인도네시아팀이 진행한 '더하기 프로젝트'가 있었다.

필립스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필립스 더하기 프로젝트(The + Project by Philips)'가 한국을 찾았다. 필립스는 1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이번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에 이은 네 번째 프로그램 대상 국가로 최근 어린이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돼 6000개에 달하는 의견이 응모됐다. 횡단보도에 LED 조명을 설치해달라는 등 아이를 둔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했다.

필립스전자 김태영(사진) 대표는 "다른 나라보다 10배나 많은 아이디어가 접수될 만큼 호응이 뜨거웠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필립스가 기존 소형 가전 중심의 회사에서 헬스 앤 웰빙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립스 '더하기 프로젝트'가 특별한 것은 소비자의 아이디어가 실제 현실화된다는 데 있다. 필립스 측은 해당 응모자와 지역사회 또는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아이디어를 실현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필립스가 120년 넘게 해온 조명 사업의 노하우를 비롯해 100년 이상 이끌어온 헬스케어에 대한 철학과 뛰어난 라이프스타일 제품 등을 결합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식욕 왕성한 식품업체들 음원·애견사료시장 진출

식품업체들이 새로운 성장엔진을 모색하는 중이다. 13일 신사업 계획을 속속 발표했다.

제과업에 대한 정부 규제로 파리바게뜨 매장 확장이 어려워진 SPC그룹은 온라인 음악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1200만 명이 가입해 있는 멤버십 서비스인 '해피포인트'를 활용, 음원을 살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미리 쌓아둔 포인트로 결제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름은 '헬로'로 정했다. SPC 측은 이번 사업을 위해 온라인 음원업체인 네오위즈인터넷의 벅스뮤직과 제휴를 맺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은 애완동물용 사료 제품인 'CJ 오 후레시'를 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료 시장은 1500억원대 수준으로, 외국계 제품이 70%에 달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애완동물 시장은 2010년 1조원대에서 2012년 1조8000억원대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애완동물용 사료 제품을 앞세워 사료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전효순기자

'피자헛 향수' 받아가세요

갓 구워낸 피자의 맛있는 냄새를 담은 향수가 국내에 선보였다.

한국 피자헛은 페이스북 팬들에게 피자헛의 한정판 향수 '오 드 피자헛'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화제를 모은 피자 향수는 전 세계적으로 1000개, 우리나라에선 50개만 제작했다. 피자헛 향수는 지난해 캐나다의 네티즌이 제안한 것으로, 고소한 도우의 냄새와 토마토소스, 제소, 치즈의 향이 어우러졌다.

트라이씨클 모금액 전달

...트라이씨클이 최근 자사가 운영하는 5개 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진행, 200만원 상당의 난방용품과 난방비 및 모금액 300만원을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라이씨클은 이번 나눔 사랑 실천을 위해 국제 NGO 단체인 '기아대책'과 함께 연계해 모금활동을 벌여왔다.

트라이씨클의 전략기획부 총괄 김만식 이사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라이씨클은 브랜드 아울렛몰 '하프클럽닷컴'과 패션 트렌드 전문몰 '오가게', 스포츠관련 전문몰 '하웃도어스', 유아동복몰 '보리보리', 커뮤니티 사이트 '스타일렛'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 두번 놀래킨 한국 호텔리어들

국내 호텔리어들이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 아코르 그룹은 한국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호텔의 한은미 관측 지배인을 '2012년 아코르 최우수 관측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시아 지역 내 아코르 계열 호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최우수 관측상'은 한 해 동안 관측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한 명에게만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아코르 최우수 관측상을 수상한 한은미 지배인은 2007년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 입사해 현재까지 법인 관측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아코르 그룹 프랑스 본사에서 열린 '아코르 프로페셔널 챌린지' 대회에서는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의 정하연 셰프가 조리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박지원기자

한은미 정하연

CGV 지금은 '경품의 계절'

CGV가 다음달 14일까지 커플과 솔로를 모두 응원하는 이색 이벤트를 진행한다.

프리미엄 커플석 '스윗박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203명에게 미국, 베트남, 중국 커플 여행상품권(3명)과 캐주얼 브랜드 엠폴햄의 커플티(200명)를 경품으로 준다. 또 포토티켓 이용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영화관람권(1인 2매)을 증정한다.

이 기간 솔로 고객을 위해서는 2인 유료 관람 시 동반 1인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평일 현장 예매 시 적용된다.

CGV의 프리미엄 특별관 '씨네드쉐프'와 '골드클래스'에서는 14~17일 '사랑의 레시피 이벤트'를 실시, 티라미수·와인 2잔·아로마 캔들 등을 선물한다.

초슬림 담배 '윈스턴XS' 출시

2300원짜리 초슬림 담배가 나왔다.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는 '윈스턴(WINSTON) XS' 라인을 13일 국내 출시했다.

세계에서 가장 슬림한 담배로 알려진 'XS 마이크로 수퍼라이트'를 비롯해 패키지 디자인에 신경 쓴 'XS 라이트', 공간필터를 적용한 '엑스타일 라이트' 등 세 가지 제품으로 선보인다. XS 라이트와 엑스타일 라이트의 타르 함량은 6.0mg, 니코틴 함량은 0.5mg이며 XS 마이크로 수퍼라이트의 타르 함량은 3.0mg, 니코틴 함량 0.3mg이다. 세 가지 제품 모두 가격은 2300원.

프러포즈는 롯데월드서! 16일까지 밸런타인 행사

롯데월드가 16일까지 '밸런타인데이 로맨틱 프러포즈' 행사를 진행한다.

14일까지 홈페이지에 사연을 미리 신청한 고객 중 한 커플을 선정해 밸런타인 그룹사운드 '뮤지믹스밴드'의 공연 중 깜짝 프러포즈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16일 오후 8시부터는 밸런타인 특집 라디오 공개방송을 열어 아이돌 그룹의 신나는 무대를 선사한다.

만 20세 이상 커플에게는 2인 이용 가능한 주간 자유이용권을 16% 할인된 6만7000원에 판매한다.

문의: 02)411-2000

이국적 야외스파 '사계절 휴식처'

밸런타인 선물? '해외여행' 최고

20~40대 직장인들은 밸런타인데이에 '둘만의 로맨틱 여행'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최근 20~40대 직장인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받고 싶은 밸런타인데이 선물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27.2%가 '해외여행'이라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연인과 함께 떠나고 싶은 최고의 여행지로는 '발리·하와이 등 바닷가 휴양지'(43.0%)가, 가장 선호하는 숙소로는 '한적한 리조트 또는 풀빌라'(53.6%)가 꼽혔다. 그러나 이런 바람과는 달리 연인과의 여행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점은 '비싼 여행 경비'(39.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밸런타인데이에 연인과 함께 즐기고 싶은 호텔 내 시설로는 '커플 스파'(45.7%)를 가장 많이 택했고, 다음으로 '야경이 아름다운 고층 바'(24.1%), '뷔페식 레스토랑'(11.2%) 등이 뒤를 이었다.

/채지은기자

롯데호텔제주 '해온' 개장

매서운 추위에 폭우까지 쏟아지던 지난 1일, 롯데호텔제주의 온수풀 '해온'에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바로 옆에는 호텔방을 옮겨놓은 듯한 카바나, 대형 TV가 설치된 자쿠지, 통유리로 된 건식사우나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비가 잠시 그친 낮에는 온수풀을 찾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은은한 명상 음악이 호텔 정원에 울려 퍼졌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뜨끈한 온수풀은 한 손에 칵테일을 든 연인들로 북적 였다.

◆ 제주 최대 규모 온수풀&정원

롯데호텔제주가 이달 초 오픈한 럭셔리 야외 스파&가든 '해온(海溫)'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 휴식처'다.

기존 야외수영장을 5개월간 개·보수해 문을 연 '해온'은 힐링(Healing)과 펀(Fun)을 주제로 한 제주도 최대 규모의 온수풀 겸 테마정원. 투입 자금만도 100억원이 넘었을 정도로 각별한 공을 쏟았다는 게 호텔 측의 설명이다.

스파는 풀바, 자쿠지, 카바나 등으로 꾸며진 '해온'은 '바다(海)'와 '따뜻함(溫)'을 합쳐 만든 이름처럼 남국의 온기와 치유 에너지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제주 자연을 닮아낸 조경과 곳곳에 퍼지는 명상음악, 자쿠지의 아로마 테라피 등이 새로운 힐링의 세계로 빠지도록 한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드넓은 스파존. 약 4630㎡(1400평) 규모로 성인용 일반풀과 아이들을 위한 키즈풀로 나뉜다. 30도의 따뜻한 온수로 채워져 있어 계절에 상관없이 야외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아이패드와 방수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도 무료로 빌려준다.

수영장 안에 마련된 이국적인 풀바(Pool Bar)도 매력적이다. 온수풀에 몸을 담그고 풀바의 다양한 음료를 맛볼 수 있는데, 해온의 시그니처 칵테일인 '한라티니'는 특특하다. 한라산 소주에 한라봉과 유자꿀을 섞어 만들어 상큼하면서도 달콤하다.

온수풀 주변에는 총 3개의 자쿠지와 4개의 카바나가 있다. 고급 객실 못지않은 카바나 안에는 고급 소파와 뱅앤올룹슨 오디오, 벽난로, 커피머신 등을 비치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꾸몄다.

수영을 하다 한기가 들면 건식사우나에 들러도 좋다. 건식사우나는 100% 편백나무로 만들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호텔 관계자는 설명했다.

◆ 풍차·호수··· 낮보다 아름다운 밤

예쁘게 꾸민 정원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기존 별관 앞 호수 공간을 메워 걷고 싶은 산책길로 꾸미고, 외벽과 돌다리는 주상절리를 형상화해 호텔을 벗어나지 않고도 제주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해온'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온수풀을 둘러싼 풍차와 호수가 밤이면 운치를 더한다. 특히 풍차에 설치된 LED 조명이 반짝이며 제주의 밤을 환하게 밝힌다.

롯데호텔제주는 해온 오픈을 기념해 3월 31일까지 디럭스룸 1박에 올레 트레킹 등이 포함된 '하이! 해온' 등 패키지를 판매한다. 문의 1577-0360

/채지은기자 [email]@metroseoul.co.kr

풀바에서 '한라봉 칵테일'··· 카바나서 우아한 힐링

아침고요수목원 600만개 LED 향연

경기도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이 다음달 3일까지 600만 개 전구에 불을 밝히는 '오색별빛 정원전'을 연다.

기존 조명축제와는 달리 수목원 그대로의 풍경을 자연스러운 빛으로 빚어내는 축제다. 축제 기간 형형색색의 LED 조명이 일몰부터 오후 9시까지 33만㎡의 야외 정원 곳곳을 수놓는다.

편안함을 안겨주는 고향집 정원부터 빛으로 태어난 별꽃의 자태는 분등송이가 달린 빛의 터널을 지나 보랏빛의 신비로운 분재정원으로 이어지고, 하경정원에서 빛의 절정을 보여준다.

하경정원을 뒤로한 채 등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 동화 속에서 본 듯한 호박마차, 말, 사슴, 천사 등 다양한 조형물들이 동심으로 이끈다.

한반도 모양으로 설계돼 통일 조국의 염원을 담은 하경정원은 별빛 융단이 보석으로 수놓은 듯한 화려함을 자랑한다. 문의 1544-6703

/정은지기자 [email]

홍대앞 신개념 부티크 호텔

신개념 부티크 호텔 '호텔 더 디자이너스 홍대'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문을 열었다.

지상 16층 굴비층-지하 1층 규모에 객실 80개, 브런치 레스토랑, 옥외정원바로 구성됐다.

객실은 '뉴욕과 런던 사이의 룸'이라는 콘셉트로 80개 모두 다르게 디자인됐으며, 이 중 28개는 스위트룸이다. 예약 시 요청하면 공항 가자, 공연 등의 티켓팅과 공항 픽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1층 브런치 레스토랑 '플레이트 플레이트'는 올 데이 브런치로 모든 메뉴에 유기농 재료를 사용했다.

가이라쿠엔

후쿠로다노다키 폭포

오아라이 수족관

아귀탕

이바라키 공항

일본 이바라키 현의 볼거리

이바라키 현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가이라쿠엔은 일본 3대 정원으로 매화가 만발하는 2월에서 3월에 걸쳐 매년 매화 축제를 실시하고 있답니다
시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후쿠로다노다키 폭포는 높이 120m 폭 73m로 일본 3대 폭포 중 하나로 이바라키 현의 인기 관광지입니다
또한 드넓은 태평양을 배경으로 돌고래 쇼와 각치소를 비롯하여 볼거리가 풍부한 오아라이 수족관은 일본 제일의 상어 사육수를 자랑합니다
이바라키 현의 대표적인 먹거리이자 겨울철 별미인 아귀탕은 여성에게도 큰 인기이며 겨울에서 3월까지가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관광 이바라키" 한국어 홈페이지
URL http://www.ibarakiguide.jp/kr/
이바라키 관광

茨城
이바라키

모니터 투어를 모집중인 여행사

롯데관광	노랑풍선	자유투어
URL http://www.lottetour.com/	URL http://www.ybtour.co.kr/	URL http://www.jautour.com/
Tel 02-2075-3001	Tel 02-2022-7286	Tel 02-3455-0004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그 겨울…' OST 프로듀싱

가수 강타가 SBS 수목극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의 OST 프로듀싱을 맡았다.

13일 공개된 주인공 오수(조인성)의 테마곡 '역지'는 현악과 드럼 연주가 돋보이는 팝발라드로 슈퍼주니어의 예성이 불러 감성을 더했다. 한편 강타는 22일 첫 방송되는 엠넷 '보이스 코리아 2'의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데뷔 후 첫 단독 팬사인회

배우 박세영이 데뷔 후 첫 단독 팬사인회를 개최한다.

소속사 숲트엔터테인먼트는 "박세영이 16일 오후 3시에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한 시간 동안 팬 사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통해 팬들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박세영은 "무척 떨리고 기대된다. 팬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사기혐의로 징역 2년 6월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결국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13일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강성훈은 3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앨범에 고 채동하 추모곡

SG워너비 김진호가 첫 솔로 앨범에 세상을 떠난 전 멤버 채동하를 추억하는 곡을 담았다.

14일 발매할 정규앨범 수록곡 중 '안개꽃'은 SG워너비 멤버들을 안개꽃에 비유한 곡이다. 수많은 송이가 어울려야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음악으로 공체 풍성한 안개꽃을 만든 시절 채동하의 목소리를 기억하겠다는 의미가 노랫말에 담겼다.

이중생활 캐릭터로 신세계 봤죠

영화 '신세계' 조폭집단 잠입경사 역 이정재

몸보다 복잡한 내면연기 촬영내내 물음표
다작 안한 건 후회… 결혼 생각은 없어요

"영화를 살리려면 튀 나지 않는 캐릭터를 연기해야 한다"는 말을 금과옥조로 여겼던 이정재(40)가 이 같은 속설을 보기 좋게 깨뜨렸다. 거대 폭력 조직 내부의 권력싸움과 이를 둘러싼 음모와 배신을 그린 영화 '신세계'(21일 개봉)에서 조직에 잠입한 경찰 자성을 연기했다. 탁월한 스타일에 절제와 균형의 미학까지 더하며 연기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 보였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 이번 작품의 모든 것

'신세계'와의 인연은 1년 전 선배 연기자 최민식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다. 평소 사석에서 오가며 몇 차례 만났던 선배에게 "팬으로서 존경한다"는 말을 건넸을 만큼 그에게 최민식은 특별한 존재였다.

"대한민국 최고 배우에게 출연 제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날 무척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시나리오를 받아든 순간 고민이 시작됐죠. 몸보다는 내면으로 연기해야 하는 조직과 경찰 사이에서 갈등하는 연기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불안했어요."

경찰청 강 과장 역의 최민식은 강한 드라이브를 걸듯 묵직하게 극을 끌어가고, 자성의 의형제와 같은 조직 2인자 정청 역의 황정민은 살기와 코믹 사이를 오가는 극단의 캐릭터를 보여주면 됐다.

"발산하고 표현을 많이 하는 연기를 할 때 배우의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오늘 뭔가 큰일을 한 것 같은 뿌듯함도 들고요. 이번 영화에서는 정반대였죠. 촬영 내내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답답했어요."

복잡한 캐릭터를 놓이기는 방법은 감각적으로 현장의 공기를 느끼고 분위기를 타는 것이었다. 정체가 탄로 날 것에 대해 종폭되는 불안감을 극의 진행이 맞춰 미세하게 표현했고, 손가락 움직임과 얼굴 찡그림 하나까지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도구로 정교하게 사용했다.

"가만히 있는 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어요. 손가락 하나를 구부렸을 뿐인데 과하다며 NG가 나기도 했고, 감정을 폭발시킬 때는 밋밋하다고 지적을 받기도 했어요. 늘 그 중간을 유지해야 했죠."

탁월한 세 배우의 화학작용이 성공적으로 합해질 수 있었던 공을 두 선배 연기자에게 돌렸다. "민식이 형이 그렇게 유머러스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였죠. 정민이 형은 늘 아이디어가 넘쳤고요. 두 선배들이 호흡을 조화롭게 맞춰줬기 때문에 할원 수월하게 연기할 수 있었죠."

◆ 그의 연기관과 삶

1300만 관객을 동원한 '도둑들'로 지난해 8번가를 꽉 채웠고, 7개월 만에 신작을 내놓았다. 또 다른 신작 '관상'이 7개월 후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1~2년에 한 작품을 하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행보다.

"예전에는 좋은 작품을 골라서 해야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또 다작 배우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소모적으로 자신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죠. 요즘 갑이 후회하고 있어요. 후배들에게도 작품을 많이 하라고 조언해 줘요. 사실 기다리기만 한다고 좋은 작품이 온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요즘은 흥미 있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하자는 마음으로 연기하며 새롭게 배우고 있죠."

연기 생활 20년을 맞고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요즘 새롭게 연기 열정을 불태우고 있지만,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이어가는데는 변함이 없다. 헬스클럽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요가를 배우고 있고, 조만간 테니스와 스포츠댄스도 배울 계획이다.

"제가 가정을 갖고 아이를 키우는 상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나이가 찼음에도 미아와 가정이 없다는 데 대한 불안감도 별로 없고요. 물론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 후회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렇게 크게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소개팅이 들려서 들어오다가 또 어떨 때는 주위에 이성이 아예 없기도 하죠. 언젠가는 오랫동안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하겠죠. 그래도 이런 생활에 익숙해서인지 별로 깊게 생각은 안 한답니다."

사진/최종성 디자인/원덕윤

아이돌 '부상 도미노'

힘찬 골절상 · 산들 무릎 수술

자석더 대표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 연이어 부상을 당해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B.A.P의 힘찬(왼쪽)은 최근 해외 일정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중 미끄러지면서 오른손 약지와 새끼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즉시 수술을 받았고 손과 손목 부분을 감싸는 깁스를 한 채 요양 중이다.

B.A.P는 12일 두 번째 미니앨범 '원 샷'을 발표하고 활동을 재개했고 23~24일 첫 단독 콘서트도 앞두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멤버 부상으로 당분간 5인조로 활동할 예정이다.

B1A4의 산들(오른쪽)은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다. /유순호기자

뉴이스트 "레인보우 한판붙자"

오늘 '엠카'서 남녀 성대결

애프터스쿨 남동생 뉴이스트와 카라 여동생 레인보우가 같은 날 컴백 쇼케이스를 열고 남녀 성대결을 예고했다.

뉴이스트는 13일 합정동 인터파크 아트센터에서 두번째 미니앨범 '여보세요'의 발매 소식을 알렸다.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덤덤한 척 하는 남자의 마음을 전화통화 형식으로 표현한 타이틀곡 '여보세요'는 기존의 반항아 이미지를 탈피하고 남성미를 어필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리더 JR은 "핵 영상을 이용한 스토리 안무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이번 콘셉트를 통해 정말 '끝장'을 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레인보우는 홍대 브이홀에서 정규 1집 '레인보우 신드롬'을 처음 공개했다. 1년 8개월 만에 타이틀곡 '텔미텔미'로 대중 앞에 서는 소감에 대해 재경은 "실업자가 됐다가 다시 직장을 찾은 기분"이라면서 "어떤 그룹과 맞붙게 되더라도 팀워크로는 우리를 이길 아이돌이 없다는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며 재치 있는 답변을 내놨다.

이들의 첫 맞대결은 14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펼쳐진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크라잉넛, 씨엔블루에 저작권 침해 손배소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가 인디 음악계와 또다시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록밴드 크라잉넛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씨엔블루와 이들 소속사 한성호 대표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크라잉넛 측은 "씨엔블루가 2010년 6월 케이블 엠넷의 '엠카운트다운'에서 크라잉넛의 멤버 이상혁이 작사·작곡한 '필살 오프사이드' 무대를 선보이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 노래를 직접 연주하고 가창한다는 커버 관련 저작권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방송에서 크라잉넛이 연주하고 가창한 원곡을 틀어놓고 공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씨엔블루 측은 "당시 남아공 월드컵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엠카운트다운' 제작진이 당일 반주용 음원을 준비했으니 틀드컵 응원가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신인이라 방송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며 "우리도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유순호기자 suno@

"요리는 내가 한수 위"

토니안·손호영 '마스터셰프 코리아…'서 대결

1세대 아이돌 HOT의 토니안과 god의 손호영이 요리로 자존심 대결을 벌인다.

22일 첫 방송되는 케이블 올리브의 스타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마스터셰프 코리아 셀러브리티'에 출연한 이들은 11명의 출연자 중 유독 서로를 경계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토니안은 최근 외식 사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요리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식점을 운영하는 어머니와 돌아가신 요리사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뛰어난 미각과 천부적인 요리 감각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맞서 손호영은 올리브의 레시피 프로그램인 '푸드에세이'를 진행했을 정도로 검증된 요리 실력의 소유자다. 전문 셰프 못지않은 식재료에 대한 이해와 요리 철학으로 출연자들을 놀라게 했다.

'…셀러브리티'는 '마스터셰프 코리아'의 스핀오프 버전으로 이들을 비롯해 개그우먼 신봉선, 가수 와오비, 미스에이 페이, 슈퍼주니어-M 헨리, 달시벳 지율 등 아이돌 그룹 멤버, 배우 이계인·김성수·신은정, 성우 서혜정 등 연예계 요리 고수들의 대결을 다룬다.

/유순호기자 sune@

'베를린' 500만 돌파…'광해'보다 4일 빨라

액션 대작 '베를린'이 올해 개봉작들 가운데 가장 빨리 전국 관객 500만 고지를 돌파했다.

13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베를린'은 12일 하루 동안 31만4009명을 불러모아 상영 14일 만에 누적 관객 503만7311명을 기록했다. 치열하게 흥행 다툼을 벌이고 있는 '7번방의 선물'보다 이틀, 지난해 1200만 관객을 동원한 '광해, 왕이 된 남자'보다 나흘 앞선 관객몰이 속도다.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개봉 초반 20~30대로 시작해 설 연휴 가족 단위를 거쳐 이제는 40대 이상 중장년으로 관객층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준기자 when@

"우유주사 불법투약이라뇨"

박시연·현영 혐의 강력부인

청담동과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이달 초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배우 박시연과 방송인 현영이 이를 강력 부인했다.

박시연 현영

박시연의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13일 "박시연이 2008년 영화 '마린보이'와 '다찌마와 리' 촬영 도중 허리 부상을 입었고 이 때문에 2009년 '패밀리가 떴다'에서 하차했을 정도로 통증이 극심했다"면서 "여배우로서 이미지를 고려해 남몰래 허리 수술을 받았다. 이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프로포폴을 사용했지만 당시에는 어떤 약품을 썼는지 알지 못했다"고 정황을 밝혔다.

현영 역시 소속사를 통해 "이번 조사는 의사의 처방이 돈을 목적으로 남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며 "미용을 위해 의사 처방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1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단 한 번도 병원을 찾은 적이 없다. 만약 불법으로 투약했다면 제대로 보관이나 시후 장기기증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앞서 지난달 말 장미인애와 이승연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wind8686@naver.com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Day 19 Where do you live?

이웃과 대화하기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문으로입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By the way, 벌써 아침 식사 한 거예요?
B: Yes, I have. 두 시간 전에 아침 먹었어요.
A: You get up to study English, don't you?
B: Yes, I do. It's not that easy. 평생 영어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말이죠.

정답: have you had breakfast already? / I had breakfast two hours ago. / I've studied English all my life

생생영어팁

▶ I'm still new here
저는 아직도 이곳에 많이 낯설어요.

직역하면 '난 여전히 여기가 새롭다'는 뜻으로, 아직 적응하고 알아가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에 비해 I'm no stranger here.라고 하면 '나는 이곳에 전혀 이방인이 아니다', 즉 이곳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 I'm a stranger here.라고 하면 '난 이 곳이 처음이다'라는 뜻으로 누군가 길을 물을 때 자신도 그곳이 처음 와 본 경우 할 수 있는 말입니다.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부사 어휘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around	부 대략	around 100 employees 대략 100명의 직원들
carefully	부 주의 깊게, 신중하게	review the contract carefully 계약서를 신중하게 검토하다
conveniently	부 편리하게	conveniently located 편리하게 위치한
essentially	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essentially different methods 본질적으로 다른 방법들
once	부 한때, 한 번	The item was once popular 그 물건은 한때 인기가 있었다
otherwise	부 다르게, 그렇지 않으면	decide to do otherwise 다르게 하기로 결정하다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1. Read a text aloud

숫자와 단위

두 자리 숫자는 숫자 단위를 지키며 보통 sixteen, 24는 twenty-four와 같이 읽어준다. 반면, 세 자리 숫자는 하나씩 따로따로 끊어서 378은 three-seven-eight과 같이 읽어준다. 숫자는 항상 끝이 있는 숫자를 좀 더 강하게 읽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You will take flight #56. 당신은 56편 항공기를 탈 것입니다.
flight number fifty-six
We are staying in room 16. 우리는 16호실에 묵을 것입니다.
room sixteen

서수 읽기

서수는 '~번째'라는 의미로, 날짜, 층수, 몇 주년 등을 말할 때는 반드시 서수 형태로 바꿔서 읽어줘야 한다. 서수는 원래 숫자+th의 형태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첫 번째는 first, 두 번째는 second, 세 번째는 third라는 것을 기억하자.

It is located on the 1st [first] floor. 그것은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My sister is a 3rd [third] grader. 내 여동생은 3학년입니다.
My apartment is on the 10th [tenth] floor. 내 아파트는 10층에 있습니다.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lmBooks.com 02)2000-0515

메이저리그 정복 스타트!

괴물 투수 류현진(26·LA 다저스)이 메이저리그 정복의 첫 발을 내디뎠다.

류현진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캐멀백 랜치 스타디움에 문을 연 다저스의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동료 투수·포수들과 가볍게 몸을 풀었다. 야수진은 16일 합류한다.

다저스 로고가 새겨진 푸른색 트레이닝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소집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오전 9시에 훈련장에 도착한 류현진은 먼저 신체검사를 한 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몸을 달궜다. 이어 10분간 캐치볼을 하며 어깨를 풀었다.

클럽하우스를 나와 운동장으로 걸어가는 통로 옆에서 기다리던 팬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줬다. 류현진을 알아본 젊은 팬들은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외치며 친근감을 나타냈다.

이달 초 애리조나에 도착해 개인적으로 몸을 풀어온 그는 15일 불펜에 올라 실전과 똑같은 전력투구를 할 계획이다. 이를 뒤 17일 불펜 투구를 이어간다. 투구 수는 30개로 잡았다.

류현진이 다저스의 스프링캠프를 구경 온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 스프링캠프 시작 · 15일 불펜서 실전투구

류현진은 "캠프 시작 전 불펜에서 30개씩 두 차례 던졌다"며 "캠프 들어 첫 불펜 투구에서 실전처럼 던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을 하면서 몸무게가 5kg 정도 빠졌다. 시범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햄버거를 먹지 않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지난달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를 쌓아놓고 먹는 장면이 트위터를 타고 퍼져 팬들의 관심을 끈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다저스는 23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시범경기를 펼친다.

/김현준기자 mk m@metroseoul.co.kr

으악! 훈련 첫날부터 '지옥의 펑고'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야수(왼쪽)가 대만 도류구장에서 류중일 감독의 펑고 볼을 받아내며 '지옥 훈련'을 하고 있다. 류 감독은 훈련 첫날부터 '지옥의 펑고'로 선수들을 강하게 조련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한국인 첫 AP 선정 축구선수 '톱10'

'해결사' 손흥민(21·함부르크)이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 축구 주간 '톱 10'에 선정됐다.

AP통신은 13일 지난주 세계 축구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 10명을 발표하면서 손흥민을 7위(36점)에 올리며 "손흥민이 지난해 AP통신의 '톱 10'이 생긴 이후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매주 전 세계의 축구기자 20명의 투표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 최고의 선수 10명과 10개 팀을 뽑는다. 손흥민은 9일 도르트문트와의 분데스리가 21라운드에서 시즌 8·9호골을 잇따라 터뜨리면서 팀의 4-1 대승을 주도한 데 힘입어 순위에 들었다.

선수 랭킹 1위는 9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183점)가 차지했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함부르크는 이 주의 팀 순위에서 6위(71점)를 차지했고, 헤타페를 6-1로 꿇리친 FC바르셀로나가 팀 랭킹 1위(177점)에 올랐다. /김민준기자